

Interview



한국공학 70주년에 즈음하여...

취재 | 제도연구실 손 영 선

Q 올해가 서울산업대학교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 대학교인 서울 산업대학교의 100년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A 고종32년(서기1895) 국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표방하는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면서, 자주적 교육 입국의 의지에서 비롯된 서울산업대학교는 1910년 4월 15일 설립된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가 모체이며,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를 시작으로 1931년 경성공립직업학교, 1944년 경성공립공업학교, 1953년 경기공업고등학교, 1974년 경기공업전문학교, 1979년 경기공업전문대학, 1982년 경기공업개방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1988년 서울산업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열린교육에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이념을 더하여 학문과 기예를 겸비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입국 100년의 역사, 이공계 명문의 전통과 명성을 가진 국립종합대학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최고의 취업률, 수준높은 교수진과 교육시스템, 자연친화적인 넓은 캠퍼스와 첨단 교육시설 등, 서울산업대학교는 이 모든 강점을 발판으로 삼아 눈부시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Q 귀 교는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최우수 성적으로 거점센터로 지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공학계의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서울산업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재정지원사업에서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지정받아 5년간 10억원의 지원을 받아 대학내 자체 공학혁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으며, 또한 전국 60여개의 공학교육혁신대학중에서 거점센터대학으로 지정되어 거점소속의 20개 대학과 함께 5년간에 걸쳐 10억원의 지원을 받아 참여대학의 혁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대학의 혁신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웹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기획부터 설계, 제작까지 종합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다학제간 캡스톤디자인 사업과 학문간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기술 인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의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학인증제를 통한 공학교육의 품질 향상과 설계교육과 실험교육을 통한 (learn by doing) 기술 응용능력과 창의설계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기업체에서는 신입사원의 재교육 비용을 경감시키도록, 그리고 학생한테는 취업 기회 확대와 취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Q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사한 결과 서울산업대학교가 높은 취업률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결과



김종호
서울산업대학교 공과대학장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65개 대학 2009학년도 졸업생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 서울산업대가 대구모 대학 중에서 취업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취업난 속에서 지난해 8월과 올 2월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한 곳은 졸업생 3,000명 이상 대학기준에서 첫 번째가 서울산업대(75.4%)였으며, 이어서 고려대 안암캠퍼스(74.3%), 성균관대(71.0%), 원광대(72.2%), 한양대 서울캠퍼스(71.0%), 동아대(70.7%), 연세대 서울캠퍼스(70.3%) 등의 순이었습니다.

서울산업대의 취업률이 전국 1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서울산업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특성화된 산학협력 시스템, 서울테크노파크 운영,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교육, 프로젝트 중심 교육 및 첨단 반도체 및 나노 실습 교육, 졸업생 동문의 취업 멘토링, 지도교수의 밀착 학생지도 등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 인프라가 밑바탕이 된 당연한 결과입니다.

산학협력특성화 대학

서울산업대학교는 2009년 현재 500여개 국내 기업 및 일본의 사쓰 등 해외 15개 기업과 산학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현장 방문교육, 겸임교수제 운영 등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교육이 강화되어 있다. 전국 1,000여개 기업과 재배결연이 체결되어 있어 기업의 애로를 가장 선두에서 해결하고 있는 대학으로 손꼽힌다. 이밖에도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창업보육센터, 산학협의회 운영 등 활발한 산학협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테크노파크

미래형 산업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해 가고있는 서울테크노파크는 산업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산학밀착형 사업을 주도하는 산학협력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소재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협력하여 나노, IT, 나노소재, 바이오 및 원자력의 의료산업 등의 첨단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서 하나의 졸업작품을 기획부터 설계,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해보면서 분석하고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기술력을 배양하는 독특한 교육제도이다.

첨단 반도체 및 나노 실습 교육

반도체, 나노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테크노파크의 청정실 및 최신 반도체 장비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직접 반도체, MEMS 및 나노소자를 만드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중심교육

교수 1인당 학생 5~10명으로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연구팀을 통해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 각 팀 단위로 이론과 실제를 익히는 Project Based Learning (PBL) 교과과정과 프로젝트 캠프가 운영된다.

Q 이공계위기사설과 관련하여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위상 강화를 위하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마스터플랜 및 최근 심화되는 이공계(전기공학) 실업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이공계위기가 대학의 위기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지금 서울산업대학교 공과대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학 스스로의 평가와 진단 필요성에 의하여

2008년 대학경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래 교육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정보화시대로서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단순 지식인이나 기능인이 아닌 유용한 가치를 스스로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공학도, 전공지식 응용능력을 갖춘 공학도, 실용적이고 종합적 설계능력을 갖춘 공학도, 정보지식 습득 능력 및 국제화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갖춘 공학도를 육성 배출해 내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학교위상 강화를 위해 학교 명칭 변경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내년에는 현재의 산업대학체제에서 국립대학의 일반대학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학교차원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근 심화되는 이공계 실업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는 먼저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제 공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공계 졸업자의 지식·능력과 기업 수요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공계 전공교육 내용이 산업현장의 필요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공계 졸업생들의 기획, 관리 등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전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위의 산학협동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현장의 수요가 대학교육에 반영된다면 우선 기업과 대학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산업분야별로 대학의 관련전공분야와의 집합적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기업과 대학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수요분석, 교과과정개발, 인턴십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공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공계 학생의 취업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